

## 어니언이사는 소금 인형의 집으로 놀러 오세요

류

시화작가의 시 '소금 인형'을 좋아한다는 웹이엔지코리아 조용석 대리. 그는 시 속의 소금인형과는 달리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묻지 못하는, '눅다 만 소금 인형'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그런 의미의 소금 인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를 잘 표현한 말이다. 이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소금 인형의 집'이란 블로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가 직접 만들어 올리는 '헬로우 어니언' 웹카툰은 양파를 주인공으로 당근, 오이 등이 등장해 감동, 눈물, 웃음, 용기를 건네준다. 조대리는 자신의 홈페이지(www.helloonion.com)를 통해 개인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올리다가 작년부턴 블로그에도 어니언 스토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로 양파 캐릭터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한참 어떤 캐릭터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삼겹살을 굽다가 곁들여 나오는 양파를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평소에도 양파를 즐겨 먹었는데 그때 탁! 하고 뭔가 떠올랐어요. 양파는 어떤 조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매운 성질을 가졌지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단맛이 나요. '당신을 위해 구운 양파가 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양파가 더욱 좋아져서 메인 캐릭터가 되었죠."

재미난 캐릭터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그의 헬로우 어니언에게서 들을 수 있는 라면 끓는 소리, 배경음악 소리, 휘익 하는 소리, 화장지가 너무 멀어 신음하는 소리는 더욱 이색적이다. 이는 3Dmax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파일을 베가스라는 영상편집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사운드 소스와 함께 편집한 것이다. 짧은 음성 같은 경우는 헤드셋에 붙어 있는 마이크로도 녹음이 가능하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쉽게 나와서 인터넷에 있는 사용법을 보고 간단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모바일게임 1세대 기업 웹이엔지코리아에서 게임 동영상제작 및 3D 게임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휴대 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 만한 부루마블, 낚시왕 등을 제작한 회사다. 최근 투잡족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블로그에 헬로우 어니언 스토리를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그래도 헬로우 어니언을 처음 올렸을 때 어니언을 사랑해 주던 사람들은 여전히 소금 인형의 집에 애정 어린 발자국을 남기곤 한다. 그들과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끔 만날 만큼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짓궂고 귀여우며 때로는 따뜻하게 안아주고픈 어니언. 누구나 좋아할 만한 어니언이 언젠가는 3D 캐릭터나 책, 문구용품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람해 본다.

